

Vol. 135



HANSEN **한센**

모든이에게 사랑과 소망을

2026 3·4 월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Mapping a better future...
한국한센총연합회
THE KOREAN FEDERATION of
HANSEN ASSOCIATIONS

한국한센총연합회 소개

한국한센총연합회는

1969년 10월 13일 발족되어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핵심가치

- HARMONY** — 한센가족과 HARMONY 국민 모두의 소통을 통한 편견 해소
- HOPE** — 한센가족의 사회통합과 재활에 대한 소망 실현
- HAPPINESS** — 전 세계 한센가족의 인권과 복지 증진

비전

- 차별과 편견이 없는 행복사회 실현
- 한센사업의 역할 모델로 위상 제고

미션

- 한센인의 보건 복지 증진
- 한센인의 권익 보호 강화
- 한센인의 사회 통합 지원
- 한센인의 인권 신장 확대

사업목표

- 한센인 관련 법, 제도 등의 개정 및 제정
- 한센인의 보건복지 등 삶의 질 향상
- 한센 관련 단체와 연대 강화
- 한센인(병)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 한센인 권익 증진
- 한센인 사회 통합 지원
- 미래지향적인 한센정책 수립
- 국제 교류 협력 확대
-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
- 한센 관련 정책을 통한 주도적 위상 제고

사업소개



한센가족(hansen)을 상징하는 'h'로 한센가족과 국민 모두가 눈높이를 맞춰 소통으로 하나되고 대한민국 한센사업의 통합과 한센가족의 희망찬 미래와 행복 실현을 위한 열정을 형상화함

총연합회 공식 SNS채널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CONTENTS

한센포커스

02 인사말

- 한센인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04 스페셜 리포트

- 정기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

06 한센 리포트

- 찾아가는 문화복지사업
- 치매예방교육
- 대중매체 모니터링
- 2026년도 한센병사업 관리지침 배포
- 한센 현안 사항 협의
- 시도지부장 회의
- 한센인 2세의 피해 보상을 위한 회의 추진
- 한센인의 날 개최 예정
-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한센탐방

26 지부는 지금

- 울산·경남지부

27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30 한국IDEA협회

한센공간

32 소통하는 한센

- 하얀 세상_박우택(서울·중부지부장)
- 섬_홍종음

한센이모저모

36 한센병 바로알기

- 한센병, 궁금해요!
- 복지지원 한눈에 보기

40 정보알리미

- 잘못된 습관이 만성 통증을 부른다
- 알아두면 꼭 도움 될 생활법률
- 봄을 위한 건강 식단
- 지역사회 통합돌봄
- 요즘이책

60 독자들의 공간

- 치매 예방 학습자료
- 한센 게시판
-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제24권 제2호 통권 제135호 발행일 2026년 3-4월호 발행인 이길용 편집인 우홍선 발행처 한국한센총연합회
주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전화 1566-2339 팩스 1566-2032 홈페이지 www.hansenkorea.org
이메일 hansen@hansenkorea.org 디자인&인쇄 디자인앰퍼샌드 격월간 비매품
※ 「한센」은 일반회계(국고지원)의 지원으로 발간된 것입니다.



한센인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한센 회원 및 함께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

따스한 햇살과 함께 봄의 기운이 점차 짙어지는 계절입니다. 긴 겨울을 지나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 한센 가족 여러분의 삶에도 희망과 새로운 활력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연합회는 한센인 여러분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올해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센인 평생교육 사업을 비롯하여 치매 예방 교육, 노년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착마을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한센인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활력과 희망을 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이해를 넓히기 위한 홍보와 기록 사업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한센인의 삶과 역사를 직접 듣고, 기록하여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센인의 삶과 이야기가 사회 속에 제대로 기억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술 기록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미래로 이어가야 할 소중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센인 사회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며, 의료와 돌봄, 생활 지원이 더 촘촘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국회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센인 특별법과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한센인 여러분의 삶의 안정과 복지 향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5월 14일에 '제23회 한센인의 날'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아 전국의 한센 가족 여러분이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함께 격려하며 희망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우리 한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센 회원 및 함께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총연합회는 언제나 한센인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곳에 힘이 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겪어 오신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을 잊지 않고, 앞으로는 더 많은 희망과 존중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 같은 변화와 기쁨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현장을 살피고, 한센 가족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 회장 **이길용**



한센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정기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 정기이사회

총연합회는 2월 23일 본부 사무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한센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이사회는 총연합회의 향후 방향을 설정하고 한센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책과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 회의록 낭독 ▲2025년 사업보고를 비롯해 총연합회와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202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특히 한센인 2세 특별법 개정 추진과 2026년 보건복지부에서 확대 시행하는 '지역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한 복지 지원 방안 등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총연합회는 정부 및 지자체와의 민관 협력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센인을 적극 발굴하고, 방문 진료와 주거 환경 개선 등 정부 지원 서비스가 현장에서 실요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

이길용 회장은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기대의원총회

이어 2월 27일에는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 총연합회 임직원과 전국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사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감사보고를 비롯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승인되었다. 또한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한센인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 및 국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증액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주요 현안 해결에 힘쓰고,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꽃피는 봄에 다시 돌아온 '찾아가는 문화복지' 사업



우리 총연합회는 4월 8일 상지마을(대표 김동성)에서 '찾아가는 문화복지' 사업을 실시했다.

본 사업은 총연합회가 매년 전국의 정착마을을 순회하며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장애와 고령 등으로 외출이 제한되거나 지리적 여건으로 문화 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한센인 정착마을을 직접 찾아가 문화공연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비한센인과의 문화·예술 활동 격차를 완화하고, 한센인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상지마을 공연은 마술공연과 품바공연으로 진행되었으며,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웃음이 넘치는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공연팀과 협의해 마련됐다. 이날 공연은 제한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정착마을 한센 가족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찾아가는 문화복지 사업을 통해 정착마을 한센인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웃음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착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마을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초고령 사회, 불안은 덜고 기억은 채우고! 한센인을 위한 치매예방교육



총연합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평균 연령이 80세를 넘는 한센인의 치매 예방을 위해 한센인 맞춤형 치매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인지능력 향상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올바른 예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4월 3일에 낙원마을(대표 정경욱)을 시작으로 4월 16일에는 대명마을(대표 윤철수)에서도 치매예방교육을 개강했으며, 각 마을별로 총 15회기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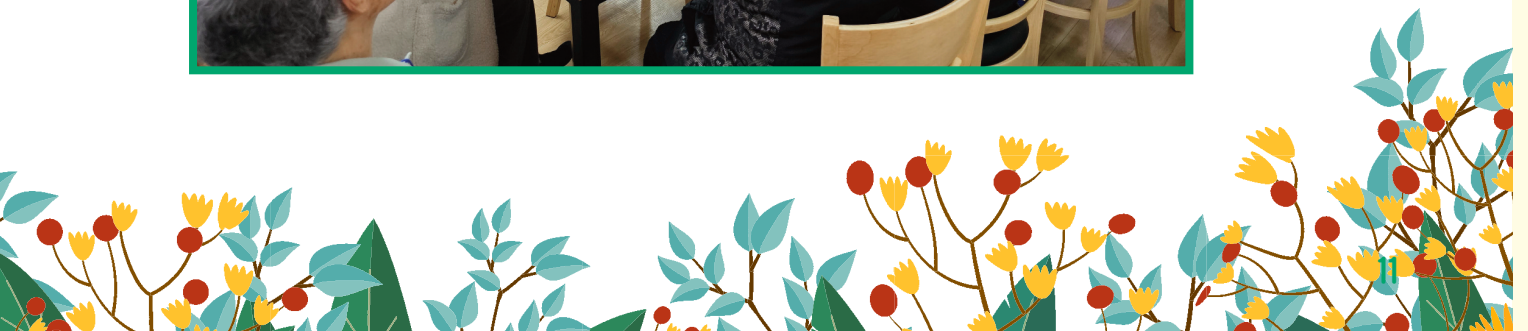
한센인 맞춤형 치매예방교육은 마을회관이라는 친숙한 공간을 활용해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평소 신체적 불편이나 장애를 드러내기 꺼려하던 어르신들이 낯선 외부인이 아닌 서로의 사정을 잘 아는 이웃들과 함께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대명마을 대표는 “총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치매예방교육에 마을 한센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마을회관이라는 편안한 공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니 어르신들의 참여도가 높다”라며 “특히 몸이 불편한 분들도 소외되지 않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주어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치매예방교육이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한센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낙원마을 치매예방교육







언론의 시선을 바꾸는 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인권 보호의 길

총연합회는 언론에서 사용되는 부적절한 표현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한센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에 힘쓰고 있으며, 2026년 1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대중매체 모니터링을 이어가며 차별적인 언어 사용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올해 3월 진행된 모니터링 결과,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습이 남아 있는 차별 용어가 총 8건 확인되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의 관습이 담긴 표현이나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는 과정에서 ‘나병’이나 ‘문〇이’와 같은 차별적 표현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총연합회는 해당 표현을 사용한 언론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 차별적 표현 대신 ‘한센병’과 ‘한센인’을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한센병은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며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위험도 거의 없다. 그럼에도 언론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차별적인 단어 하나는 한센인과 가족들에게 큰 상처와 사회적 낙인을 남길 수 있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언론에서 사용되는 차별적 용어는 한센인들에게 큰 상처와 사회적 낙인을 남길 수 있다.”라며 “단어 하나의 변화가 인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사회가 편견 없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게시물까지 모니터링 범위를 넓히고, 언론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한센병 표준 용어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26년 2월~3월 대중매체 모니터링현황

언론사명	기사 발행일	기사 제목	수정 전 단어	수정 후 단어
부산일보	2026. 2. 13.	해운대 온천 역사와 특징	나병	한센병
당진시대	2026. 2. 13.	[종교칼럼] 작은 나눔이 모여	문○병	한센병
오마이뉴스	2026. 2. 16.	“살아라” 2026년에도 유효한 미야자키 하야오의 성찰	나병	한센병
남도일보	2026. 2. 23.	이계홍 역사 장편소설 죽창 [제14장] 김개남(334회)	문○병	한센병
데일리굿뉴스	2026. 3. 4.	교회 소그룹은 ‘그들만의 리그’?... “폐쇄적 친교 넘어 환대 공동체로”	나병	한센병
한익신문	2026. 3. 6.	네팔과 히말라야가 전하는 겸손	문○이	한센인
중부매일	2026. 3. 8.	[아침뜨락] 추억의 들판으로	문○이	※ 덧붙이는 글 : 문둥이는 한센병 환자를 낮춰 부르는 표현입니다. 칼럼의 문맥을 고려해 원본 그대로 사용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주석 추가
BTN뉴스	2026. 3. 9.	“인간 경허 만난다” .. 영화 <그 사람 경허선사> 19일 개봉	나병	나병(한센병) *주석 추가

2026년도 한센병사업 관리지침 배포



우리 총연합회는 최근 지부를 대상으로 한센병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2026년도 한센병사업 관리지침'을 배포했다.

이번 지침서는 한센 관련 단체와 종사자들이 사업 추진의 이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한센병사업 안내 ▲한센병환자관리지원 예산집행 안내 ▲한센병환자관리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지침은 한센병 의료 관리와 사업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진료, 재활, 사회복지 지원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센병사업 관리지침은 매년 질병관리청에서 발간하며, 총연합회가 이를 받아 각 지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와 한센인 복지 현안 협의

총연합회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와의 면담을 통해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증액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로지원금은 2012년 말 최초 지급된 이후 14년 동안 세 차례만 증액된 상태다. 총연합회는 지속적인 증액을 통해 2027년에는 지원금을 22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중기적으로는 25만 원, 장기적으로는 30만 원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한센인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센인의 복지 증진과 인권 향상,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시도지부장 회의... 한센사업 발전 방향 논의



3월 31일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 시도지부장 회의를 개최하고 한센사업의 발전 방향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지역별 사업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한센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성과와 애로사항을 함께 공유하며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한센인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과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 지부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한센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센인 2세의 피해 보상을 위한 회의 추진



총연합회는 4월 10일, 한센인 2세의 피해보상과 인권 증진을 위해 한센인권변호단과 한센특별법 개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과 박영립 변호사를 비롯한 한센인권변호단 소속 변호사 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한센인 2세 피해 조사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2세들이 겪은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며 피해보상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협의했다. 또한 한센인 2세의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한센인 2세 피해사례 면담’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를 상반기 중 실시하기로 했다.

총연합회는 향후 한센인 2세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피해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확보하고, 한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5월 14일, 우리의 하나된 목소리가 더 밝은 미래를 만든다! 제23회 한센인의 날 개최 예정

돌아오는 5월 14일,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에서 '제23회 한센인의 날 및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1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센인과 한센가족, 일반 국민들이 함께 모여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될 이번 행사는 기념식과 유공자 포상, 전국 한센가족 율놀이와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도 3년째 이어지고 있는 특별한 사진 촬영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에 있어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으로 흩어져 지내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나, 행사 참여를 위해 정착마을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즉석에서 인화해 제공하는 '추억사진관'이 운영된다.

또한 기념식과 유공자 포상 이후에는 율놀이와 노래자랑이 이어져 한센인과 그 가족들, 일반 국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한마당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한센인들의 역사를 되새기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자리이자, 국민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제23회 한센인의 날 및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제110주년을 맞아 모두 하나 되어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소록도는 한센인 제2의 고향인 만큼 소록도의 가치와 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제23회 한센인의 날 및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제110주년

일시 2026년 5월 14일(목) 10:00~

장소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

행사일정

1부 식전행사

2부 기념행사

- 유공자 포상 시상식
- 기념사·대회사·축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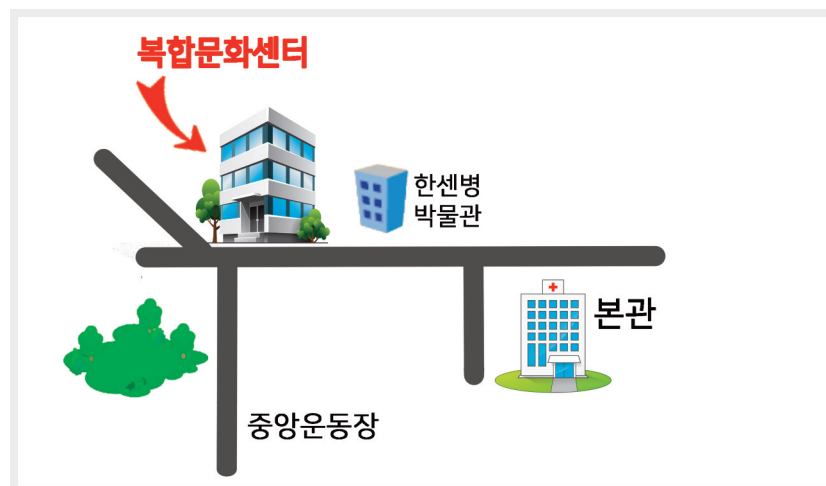
3부 한센사랑 축제 한마당

- 전국한센가족 윷놀이
- 전국한센가족 노래자랑

- 추억사진관, 우리마을 행복사진관
- 복합문화센터 외부에서 별도 진행, 10시~14시까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제23회 한센인의 날, 한센사랑 축제 한마당

웃놀이

일 시	2026년 5월 14일 11:00
장 소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
참 가 자	시도 8개지부 산하 81개 정착마을 별 대표

시상내역: 1등 - 30만 원 상당 상품권 또는 선물
2등 - 25만 원 상당 상품권 또는 선물
3등 - 20만 원 상당 상품권 또는 선물
4등 - 15만 원 상당 상품권 또는 선물

노래사랑

일 시	2026년 5월 14일 13:00
장 소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
참 가 자	한센가족·비한센인·연령·남/여 구분 없이 누구나 참가 가능

시상내역: 1위 - 20만원 상당 상품권 또는 선물
2위 - 15만원 상당 상품권 또는 선물
3위 - 10만원 상당 상품권 또는 선물
4위 - 5만원 상당 상품권 또는 선물



추억사진관

소록도에서의 추억을 사진을 담아드립니다.
행사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즉석 카메라를 통해 추억을 기록해 보세요

일 시	2026년 5월 14일 10:00 ~ 14:00
장 소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 일대
내 용	즉석 사진 인화 제공



우리마을 행복사진관

한센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장수 사진 촬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 시	2026년 5월 14일 10:00 ~ 14:00
장 소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 일대
내 용	시도지부를 통해 사전접수 및 일부 현장접수 메이크업·헤어드라이, 의상(한복·양복)제공, 사진 촬영, 촬영 이미지 후보정, 액자 제작 등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안내

1 일본 한센 가족들에 대한 보상 판결

- 일본 정부는 과거 일제강점기하 소록도에 강제격리·노동을 당한 한센피해자들에게 일본 한센 보상법을 제정하여 보상을 실시한 바 있음
- 이후 한센인 가족들이 일본 구마모토 지방법원에 제기한 보상청구소송 또한 2019. 6. 28. 승소 판결하였고, 이에 일본 정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 취지에 따라 2019. 11. 15. 한센병원환자가족보상법을 제정하여 한센인 가족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 격리 정책으로 인한 한센 가족 피해를 인정하고 사죄·반성을 표하면서, 한센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그 명예 회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센가족보상법 제정

2 보상 청구의 내용

- 보상금은 친자, 배우자 180만엔, 형제자매 130만엔 등
- 청구시한은 2029. 11. 21.까지(한시법)

3 보상 대상

- 가족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이하 청구자)는 일제강점기하(1945. 8. 15.)에 한센병이 발병된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이하 원환자)의 가족
- 대상자는 1945. 8. 15.이전 출생자로서 생존하고, 한센병 발병여부 불문(한센인, 비한센인 여부 불문)
- 대상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혼인일이 1945. 8. 15. 이전이어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도 가능
- 원환자는 1945. 8. 15.이전 발병자로서 소록도 입소 및 사망 여부 불문
- 원환자가 일본으로부터 소록도 보상을 받은 경우도 가능(대상자가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

4 청구시 필요 서류(예시)

- ① 원환자 일제하 한센병 발병사실 증명서류
 - 한센등록(관리)카드, 한센사업기록표, 나병력자 관리카드, 소록도 입소 증명서, 교적부, 세례명부, 소록도 보상결정문 등
- ② 대상자가 원환자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일제 또는 해방후 구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③ 대상자가 1945. 8. 15. 이전 출생자로 생존한 사실
 - 주민등록 초본
- ④ 대상자 은행계좌 사본
- ⑤ 기타 입증서류

5 안내 및 문의

- 현재 한국 변호사들은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을 구성(단장 조영선 변호사)하여 일본 변호단과 업무협의를 추진하였음
- 2026. 4. 20. 기준 150명의 서류를 일본에 송부하였고, 140명이 보상 결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보상 심의 중임
- 한센인 가족 피해보상은 한센인과 그 가족들이 당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보상임
- 청구인이 고령자이므로 신속하게 서류 준비 필요(청구인은 일본 정부에 서류를 접수하는 날 기준으로 생존해야 함)

문의사항 한국한센총연합회

전화 1566-2339 / 팩스 : 1566-2032

울산·경남지부, 제43차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총연합회 산하 울산·경남지부(지부장 이상용)는 3월 24일 제43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울산·경남지부 대의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원보고를 시작으로 이상용 지부장의 인사말, 이길용 총연합회장의 축사, 전차 회의록 낭독, 감사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2025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선거가 함께 진행됐다. 단독 출마한 이상용 지부장이 무투표로 당선되며 제18대 지부장으로 연임하게 됐다.

지부 운영위원으로는 부지부장 김형모(향촌마을 대표)를 비롯해 안외찬(여명마을 대표), 김봉진(신광마을 대표), 김기준(성애마을 대표), 이덕구(황금마을 대표)가 선임됐다. 감사에는 전경하(덕촌마을)와 임차량(신생마을)이 선출됐다.

어르신 웃음꽃 피운 체험 프로그램, 활력 증진에 도움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센터장 송정하)에서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활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센터는 달력 만들기, 소원 팔찌 만들기, 윷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서로 소통하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달력 만들기 프로그램



새해를 맞아 진행된 달력 만들기 프로그램은 미리 준비된 달력 도안에 색을 입히며 자신만의 달력을 완성하는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어르신들은 각자의 취향에 맞게 색을 고르고 정성스럽게 색칠하며 작품을 완성해 나갔고, 완성된 달력을 보며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나타냈다. 또한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등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소근육 활동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창작 활동을 통한 성취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소원 팔찌 만들기 프로그램



소원 팔찌 만들기 프로그램은 다양한 색상의 실과 재료를 활용해 자신의 소망을 담은 팔찌를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으로, 팔찌 만들기 키트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어르신들은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팔찌를 정성스럽게 만들었으며, 서로의 소원을 나누며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완성된 팔찌를 손목에 착용하며 환하게 웃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 활동은 어르신들의 소근육 활동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정서적 교류의 시간이 되었다.

▣ 정월대보름 윷놀이 프로그램



정월대보름을 맞아 진행된 윷놀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르신들이 팀을 이루는 윷을 던지고 말을 이동시키며 즐겁게 참여하였다.

서로 응원하고 웃음이 오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활기찬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어르신들 간의 친목과 유대감도 한층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우승 팀에게는 소정의 경품이 제공되어 참여의 즐거움을 더했으며,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준비된 피자를 함께 나누어 먹으며 따뜻하게 마무리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전통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을 늘리고 협동과 소통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등 어르신들에게 활력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시간이 되었다.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즐겁고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IDEA네팔 '제28회 국제 존엄과 존중의 날' 행사 참석

한국IDEA협회 정상권 대표회장은 3월 11일 네팔 카트만두 옐로 파고다 호텔(Yellow Pagoda Hotel)에서 열린 '제28회 국제 존엄과 존중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IDEA네팔(Association for IDEA Nepal, 회장 Dinesh Basnet)이 주최했으며, 한센병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존엄과 권리 증진, 차별 해소, 그리고 한센병이 치료 가능한 질병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국IDEA협회 정상권 대표회장을 비롯해 박명웅 공동회장, 최이만 부회장, 정영란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네팔 정부 관계자와 법률협회, 세계보건기구(WHO), 국내외 NGO·INGO 관계자, 언론인, 시민사회 대표 등 약 300명이 함께해 연대와 협력을 다짐했다.

특히 네팔 법무·정의·의회부 장관 아닐 쿠마르 싱하(Hon. Anil Kumar Sinha)는 “네팔에서도 한센병 관련 차별을 조속히 종식하고 당사자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정부 차원의 의지를 강조했다.



이에 정상권 대표회장은 “국제IDEA협회는 32년 전 창립 이후 35개국과 함께 한센인의 자립과 존엄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네팔 역시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서 모든 한센인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날 IDEA 네팔은 한국IDEA협회를 비롯해 한센병 인식 개선과 차별 해소에 기여한 근로자 10명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또한 한국IDEA협회는 오찬을 후원하며 참석자들과 따뜻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한센병 관련 낙인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주요 언론을 통해 존엄과 존중의 메시지를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하얀 세상

박우택(서울·중부지부장)

눈 덮인 하얀 세상이 아닌 또 하나의 하얀 세상이 있는 것을 나는 목격했다.

삼월 초, 서울에 사는 여동생으로부터 고모님(99세)이 위중하시다는 전화를 받았다.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석삼 년이 지나도록 찾아뵙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이 앞섰다. ‘조금 더 자주 찾아뵐 걸...’하는 후회가 마음 한켠을 무겁게 눌렀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멀리 김포 끝자락에 있다는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멀고 복잡한 길을 지나 힘겹게 요양병원에 도착했다.

고종사촌 여동생의 야윈 모습에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졌다. 어릴 적에는 ‘오빠’하며 살갑게 따르던 동생이었는데, 어느새 서로의 얼굴에는 시간의 흔적이 깊게 남아 있었다. 안쓰러운 마음에 말없이 꼭 안아 주었다.

병실에 들어서니 따사로운 햇볕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있었다. 그 햇살 아래 병실은 온통 하얀 세상처럼 보였다. 누워 계시는 침대 시트도, 옷도, 머리도, 주렁주렁 매달린 수액 세트도 모두 하얗다. 창밖의 햇빛은 따뜻했지만 병실 안 공기는 왠지 모르게 고요하고 쓸쓸하게 느껴졌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또 하나의 하얀 세상이었다.

언젠가는 하얀 천을 덮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저세상으로 가야만 하는, 피할 길 없는 현실 앞에서 잠시 생각이 멈췄다. 나는 조심스럽게 고모님의 찬 손을 잡고 얼굴을 맞대어 물었다. “고모님,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잠시 후 고모님께서 “우택아...” 하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눈시울을 붉히셨다. 그 한마디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와 순간 말을 잊지 못했다. 어린 시절 불러주시던 그 목소리와 다르지 않았다.

함께 간 아내도 알아보시고 손을 꼭 잡아 주던 모습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더 오래 곁에 있어 드리고 싶었지만 아쉬움을 뒤로하고 병실을 나와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열차 안에서도 내내 그 하얀 세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창 밖으로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병실의 하얀 풍경이 계속 남아 있었다.

여우도 죽을 땐 살던 굴에서 죽는다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왜 이렇게 원치 않는 곳에서 신음하다 가야만 하는가.

답이 없는 인생길에 오늘도 해는 지고, 내일이면 또다시 해가 떠오른다. 세월은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가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인생 공부를 많이 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늦은 밤 집에 도착해 잠자리에 들었지만 생각이 많아서인지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삶과 죽음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준비해야 한다는 막연한 마음 때문이었을까.

이튿날 아침, 나는 조용히 보건소를 찾아가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했다. 기약 없는 인생길이지만,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다가 가능하다면 내가 살던 집에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싶다.

익숙한 풍경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을 떠올리며 오늘도 나는 그 작은 소망을 마음속에 품어 본다.

섬

홍종음

1. _____

바람 한자락
풀 한포기까지도
애뜻한 만남과 별리를
섬에 두고 살아온
나

혼돈과 롤러코스터 같은
유리멘탈 감성에게
오감과 칠정을 비할 데 없이 경험해준

내 안의 내가
흔들리고 울던 때
시를 만나

존재의 눈을 뜨게 했고
자존감을 깨워 줬

세상이 어질고 고와져라를 속삭이게 했다

2. _____

습작으로 쌓인
섬의 배경과 의도를 푸는
나의 방향성도

글 쓰기의
모멘텀과 발원, 성찰의 흐름까지
일목요연해지면서

한 길로 흐르는
시의 물살을 타고
자유로이 흘러가더라

3. _____

섬에도 연륙의
21세기형 다리가 놓였고

난제이던
병의 치료와 관리가
정복, 정립된 것처럼

모름지기,

시대의 바람이
건너가고 건너오는
가교가 되길

4. _____

치료받고
치료 하는 보통사람들의
편견이 사라진
소속도를 지향하는
이 발간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며
시적 힘이자
나를 지탱하는 힘이기를

섬의 역사적 혼돈과 아픔이
선한 성찰의 정화를 켜
시적 흐름으로
우리의 섬에 연착륙하길

그래그래그래
기다리는 나를 위하여

한센병 바로 알기

한센병이란?

- 나균에 의한 만성감염병이지만 나균에 대한 면역기능이 아주 약한 경우에만 발생되고, 조기에 진단하여 조기치료를 시작하면 후유증이 거의 없이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한센병 증상

- 가장 보편적인 증상은 피부가 퇴색되거나 붉은색 등으로 침착된 반점이 나타납니다.
- 가렵지는 않지만 따뜻하거나 차갑거나 아프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해 상처나 화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또한 피부 병소가 생기기 전에 신체의 주요 신경을 잠식하여 신경통 증상으로 임파선이 붓고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 증상이 오래될 경우 손가락, 발가락 등에 힘이 없고 구부러지기도 하며 눈썹이 빠지기도 합니다.

한센병 치료시 주의사항

- 처방약물은 규칙적이고 정확히 드셔야 합니다.
- 약물투약 중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지러움, 피부염, 피부착색, 오심, 설사, 위장장애, 두통, 현기증, 불면 등)
- 기타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중단하고 진료 받은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 한센병 관리를 위한 권고처방은 다양합니다. 담당 선생님과 의논 후 투약처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권고처방을 통한 정확하고 빠른 한센병 치료로 최상의 치료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Q&A

Q1

한센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나요?
아니오.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Q2

부정군(不定群)나는 무엇을 말하나요?

- 한센병의 한 개 또는 소수의 명확하지 않는 병변이 나타나며, 피부반점이 얼굴, 사지, 엉덩이 등에 발생하며 감각소실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 부정군나의 증세는 향후 결핵양형나 또는 나종형나로 진행되기도 하며, 때로는 자연 치유되기도 합니다.

Q3

한센병의 나반응이란 어떤 것인가요?

한센병의 면역학적 변화에 따른 급성 염증 반응이며,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합니다. 나반응은 새로운 감염 없이 급성염증이 때로 심하여지는 현상을 의미하며, 환자의 약 25%에서 관찰됩니다.

Q4

한센병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한센병은 치료 가능하며, 완치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한센병은 답손, 리팜피신, 클로파지민 등의 약물을 병용하여 치료합니다. 이 치료를 적기에 하게 되면 조기에 나균이 사멸 되어 한센병이 완치됩니다.

자료출처 : 2026년 한센병사업 관리지침



농치지 마세요! 꼭 필요한 복지지원 한눈에 보기

1 요양·돌봄 서비스 지원

- ☑ 대상자: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생활이 어려운 경우
- ☑ 제공내용: 일상생활 지원 및 요양(돌봄)서비스
- ☑ 제공기관

기관명	지역	입소 담당
성라자로마을	경기 의왕시	031-452-5655
여수애양평안요양소	전남 여수시	061-682-9595
안동성좌원	경북 안동시	054-852-1448
산청성심원	경남 산청군	055-973-6966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충북 오창읍	043-241-1300

- ☑ 입소비 발생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건강보험가입자: 일부 시설의 경우 입소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

2 생계비 지원

- ☑ 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생활시설 및 간이양로주택 거주자 제외
- ☑ 제공내용: 매달 약19만원(2025년 기준) 지원(본인통장)
- ☑ 제공기관: 주민등록 관할보건소
- ☑ 안내 및 지원 가능문의: 주민등록 관할보건소

3 재활수술 및 보장구 지원

- ☑ 대상자: 재활수술 및 보장구 지원이 필요한 경우
- ☑ 제공내용 및 제공기관
 - 연구원: 성형외과, 정형외과, 치과, 안과 등 지원
 - 연구원·지부: 의수족, 보조기, 족지, 특수화 등 맞춤형 제작 지원
- ☑ 안내 및 지원 가능문의: 진료받는 복지협회 문의

4 맞춤형 서비스 지원

- ☑ 한센인 평생교육 사업: 치매예방교육, 노년 생활플러스교육,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
- ☑ 한센인 복지 사업: 찾아가는 문화복지, 한센인 합동결혼식, 우리마을 행복사진관(장수사진), 한센인 독거노인 돌봄
- ☑ 기획·홍보 사업: 한센인 구술 기록화
- ☑ 안내 및 문의: 한국한센총연합회 1566-2339

5 피해보상 청구

- ☑ 대상자: 일제 강점기하 가족(2세, 형제·자매, 배우자 포함) 피해자
- ☑ 제공내용: 피해보상 청구 관련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안내] 페이지 참조
- ☑ 안내 및 문의: 한국한센총연합회 1566-2339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지원 안내문' 홍보물

잘못된 습관이 만성 통증을 부른다.

글. 경희의료원보 편집실 사진. 안용길

[출처 : 경희의료원보 프리포즈 2025년 겨울호 VOL. 456 中]



정원석 교수
(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전문 진료분야

난치성 통증, 관절질환(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 발목 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척추질환(추간판장애, 협착증), 스포츠 및 외상성 손상, 말초신경장애, 절식요법



생활 속 사소한 습관은 체형 불균형을 초래해 근골격계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어떤 습관이 현대인을 괴롭히고 있을까?

습관과 체형, 그리고 통증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자.





잘못된 습관과 체형 불균형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운동 부족은 근력 약화를 초래하고, 근력이 약해지면 부상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부상으로 인한 통증은 정상적인 움직임을 방해하고 근력을 약하게 만들어 다시 또 쉽게 다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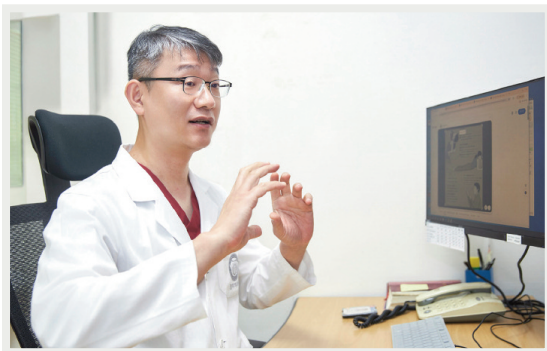
즉, 잘못된 자세와 운동 부족이 근력을 약화시키고 부상 위험을 높이며, 장시간에 걸쳐 누적된 미세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통증이 다시 잘못된 자세와 동작을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만성 통증의 상태를 만듭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사람의 경우 고관절이 굴곡된 상태로 굳어져 골반이 뒤로 넘어가는 상태가 되기 쉬우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면 어깨와 팔의 근육에 무리를 주고, 팔을 든 상태로 지탱해주는 중심축인 경추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누워서 스마트폰을 들고 오래 시청하는 경우 목과 어깨에 더 큰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문제가 내과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기온이 떨어지면 대사 기능과 함께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막의 긴장도가 증가하고, 신경 기능이 느려지면서 움직임이 둔해지고 뻣뻣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근골격계의 중요 구성요소인 근육은 살아 있는 세포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려면 원활한 대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혈액순환, 정상적인 신경 기능, 체액의 조성, 체온, 기타 다양한 내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내과적인 문제는 근골격계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골격계 문제도 내부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척추를 중심으로 한 자율신경의 자극에 의해 발생합니다. 척추의 정렬 상태가 바르지 않거나, 기능적으로 특정 마디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경우 내장의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변비, 소화불량, 소화관의 운동이나 분비 능력 저하 등이 있습니다.



“한의학적
통증 치료의 핵심은 긴장된 근육을 풀어
주고 느슨한 근육을 강화하는 조절을 통해
자세와 동작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겨울철 통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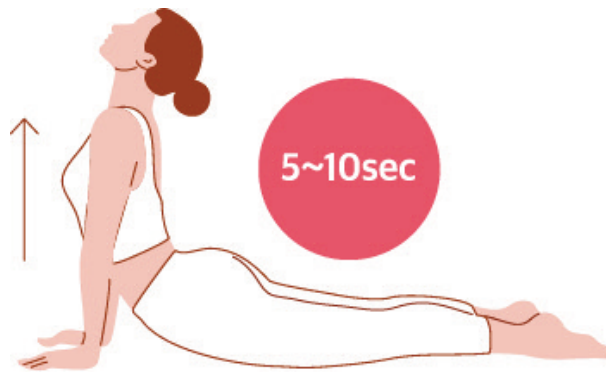
추운 날씨 때문에 신체 대사가 저하되고 근육 긴장감이 증가해 몸이 무거워지며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온 유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길이 미끄러운 날에는 외출을 최소화해 부상의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서둘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며, 무거운 물건은 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체형 불균형과 통증, 어떻게 치료하나요?

통증은 신체 손상에 대한 경고 신호입니다. 통증을 빨리 없애기 위해 진통제에 의존하다 보면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상이 진행되어 더 큰 질병으로, 더 치료가 어려운 만성 질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인 통증 치료는 통증의 원인부위와 기전을 파악하고, 긴장된 것은 풀어주며 느슨해진 것은 조여주는 조율을 통해 자세와 동작을 바로 잡아줍니다.

심한 통증으로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면, 온열치료, 전기치료 등을 활용해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아 만성염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종 조직 재생과 염증 조절 효과가 있는 약침을 이용해 치료합니다. 약해지고 불균형한 근육을 강하고 균형감 있게 만들기 위해 환자별 맞춤 운동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습관 Tip - 오래 앉아 있는 당신을 위한 스트레칭



앉아 있는 시간이 긴 직장인이나 학생에게는 매켄지 체조가 효과적이다. 국민체조의 등배운동과 비슷하다. 중요한 것은 천천히 끝까지 움직이고 잠시 멈추는 것이다. 굽히는 것보다 뒤로 젖히는 운동이 더 중요하다. 운동 중 통증이 있다면 그대로 멈추고 5~10초 정도 유지하면 된다.

이것도 사기라고? 알아두면 꼭 도움 될 생활법률

헛갈린다, 당황했다, 실수했다, 손해봤다

완벽하지 못한 것이 사람이라 우리는 살면서 항상 실수하거나,
당황할 순간들을 마주하게 된다.

알아두면 도움 될 생활법률! 살펴보고 기억해 두자!

술 마시고 집까지 자전거 타고 가세요?

음주 후 자전거 운전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보행자를 다치게 하게 되면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 음주 상태였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3만 원(최대 20만 원)
음주 측정 불응 시 과태료 10만 원

비 오는 날 물웅덩이 폭탄?

비 오는 날 지나가는 자동차가 물웅덩이를 밟고 지나가 물벼락을 맞았다면,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세탁비를 받을 수 있음
흙탕물이 튄 장소와 시간, 가해 차량의 차량 번호, 운행 방향 등을 경찰 신고
흙탕물을 튀기고 줄행랑친 차량을 신고할 경우 해당 운전자는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음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았다?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았다는 걸 알고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음
대부분 일정 기간 후에 신고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현장에서 바로 돌려주는 것이 좋음

공금 썼지만 다시 돌려봤다?

큰 회사부터, 작은 모임, 동호회 등 공금을 관리하는 총무는 공금 관리에 있어서 사적 사용을 금지함
사적으로 사용하고 다시 돌려놓는다고 할지라도 엄연한 불법 범죄 행위로 성립
큰 돈, 작은 돈을 떠나 혹시나 모를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절대로 사용하지 말 것

내가 낸 교통사고? 어떡하지?

112에 교통사고 신고, 부상자가 있을 경우 119신고, 주변상황 확인(본인의 안전확인)
휴대폰으로 현장사진 찍기(차량바퀴 위치, 부상자 위치 등), 목격자가 있을 경우 연락처 받아두기

자취방에 집주인이 허락 없이 불쑥?

주택임대차 계약에 의해 '세입자의 주거권리'가 100% 보장
집주인이라고 할지라도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갈 경우 형법 제 319조에 의거 주거침입죄 성립
언제, 왜 들어왔는지, 집주인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본인이 동의했는지 등을 메모
반복되거나 불쾌한 출입이 지속되면, 임대차 관련 분쟁이 될 수 있음

자취방에 곰팡이가 계속 생긴다?

민법 제6223조에 의해 임대차 계약 중 시설 유지 및 보수의 의무가 있음
건물 하자(누수·방수·환기·난방 설비)로 생긴 곰팡이는 임대인 책임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문자·카톡으로 정식 요청, 방치 시 수리 요구·임대료 감액·계약
해지까지 가능
환기 부족·가구 배치·세탁물 등으로 생긴 곰팡이는 임차인 책임

택배가 잘 못 갔는데 오리발?

잘못 배달된 택배를 모른척하거나 자기 것이라고 우길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음
혹은 모른척하고 소유할 경우 형법 제360조에 근거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혐의 인정 시 가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료
잘못 수령 할 경우 택배사에 연락해 택배 회수 요청

잘못 송금된 돈을 써버렸다?

타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확인하지않고 임의로 썼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

통장관리 소홀로 인해 비일비재하게 법적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음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경우 꼭 출처를 확인하고 은행에 전화해 송금 착오 사실을 알려야 함

“

알아두면 도움 될 생활법률

언뜻 복잡하고 어려울지도 모를 내용이지만,
생각해 보면 그저 ‘지킬 것을 지키면’ 되는 거겠죠?

”



다가오는 봄, 기운이 떨어진다면? 균형있게 섭취하자!

[출처 : 질병관리청 카드뉴스]

봄을 여는 건강 식단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채울까요?

✓ 덜 먹으면 좋아요

- **단순당**
- 설탕과 액상과당이 많은 가당 음료나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과자, 디저트
- **나트륨**
- 짠맛이 강한 가공식품과 국·찌개 국물

✓ 채우면 좋아요

- **단백질**
- 근육과 면역 기능 유지에 필요한 고기, 두부, 달걀 등
- **식이섬유**
- 포만감과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채소와 통곡물
- **건강한 지방**
- 혈관 건강에 좋은 생선, 견과류, 씨앗류 등(불포화지방산)

근육과 면역을 지키는 영양소
단백질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 하루 세 끼에 나누어 건강하게 섭취해요!

특히, 고령층에게는 단백질 섭취 부족이 근력 저하와 균형 능력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끼니마다 섭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 권장 섭취량(건강한 성인 기준)
 - 체중 1kg당 약 0.8~1.2g, 한 끼 평균 약 20g
- 끼니당 단백질 20g 채우는 식품
 - 닭가슴살 100g(보통 한 덩이)
 - 소·돼지고기 살코기 100g(손바닥 크기의 한 장)
 - 생선 100g(손바닥 크기의 한 토막)
 - 달걀 큰 것 3개
 - 두부 300g(한 모)

매번 끼니 챙겨 먹기 번거로운데 단백질 보충제로 채워도 되나요?

- 보충제로 인한 필요 이상의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 단백질 보충제, 이렇게 드세요!

- 식사만으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만 보조 수단으로 섭취하기
- 제품 선택 시 단백질 함량, 당류, 나트륨, 지방, 첨가물 함께 확인하기
- 자신의 식사량과 활동량을 고려해 보충제 필요 여부 판단하기
 - 많이 먹어도 0 kcal 인데 저당·제로 식품을 줄일 필요가 있나요?
 - 저당·제로는 제품 속 당류 함량이 매우 적다는 의미로 당이나 열량이 완전히 '0' 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저당: 식품 100g당 당류 5g 이하
- 제로(무설탕): 식품 100g당 당류 0.5g 미만
- 0 kcal: 100g 또는 100mL당 4kcal 미만

✓ 저당·제로 식품, 이렇게 드세요!

• 보조 수단으로 섭취

- 설탕 섭취를 줄이는 보조적인 선택지로 활용하고, 평소에는 물이나 무가당 차를 마시는 습관 들이기

• 영양성분표 확인

- '제로'표시 외에도 감미료 종류, 카페인 함량, 나트륨, 지방 등 다른 성분도 함께 살펴 과도한 섭취 피하기

• 적정량 섭취

- 일부 대체 감미료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를 유발, 적정량 섭취하기

볼 건강 관리의 시작
균형 잡힌 식사를 실천하려면?

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골고루 섭취해요

- 특정 영양소를 배제하거나 강조하지 말고 다양하게 골고루 섭취하기

②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한 습관을 실천해요

- 조리법, 식사 순서, 식사 환경 등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한 습관 만들기

③ 영양성분표와 기록 습관 실천해요

- 총열량, 당류, 단백질, 나트륨, 지방 등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고 건강 앱을 활용해 자신의 생활습관 점검하기

④ 질환이 있는 경우 의료진과 맞춤 식단 상담해요

- 당뇨병, 심혈관질환, 신장 질환 등이 있는 경우 의료진 상담 후 개인별 식단 구성하기

⑤ 식단 관리와 함께 신체활동 병행해요

- 주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주 2회 이상의 근력운동으로 건강 효과 높이기

균형 잡힌 식사를 돕는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 채소, 곡류, 육류, 유제품 균형 있게 먹기
-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기
- 물은 충분히 마시기
- 과식 줄이고, 활동 늘려서 건강 체중 유지하기
- 아침 식사하기
-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기
- 음식은 각자 덜어 먹기
- 술은 절제하기
- 우리 지역 식재료로 식생활 즐기기

‘건강한 봄 식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
누리집 바로가기
health.kdca.go.kr



병원 대신 집에서 돌봄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전국 시행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와 돌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간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돕는 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의료, 영양,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 여러 분야의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해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각각의 서비스를 직접 찾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 번 신청하면 지자체가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맞춤형으로 연결해 준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의 목적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익숙한 생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영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돌봄 공백을 줄이고 가족의 부담을 덜며, 불필요한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

통합돌봄의 주요 대상은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 65세 이상 노인 중 노쇠,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
-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환자
-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 중이지만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람

또한 기존 복지 제도와 달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일부 가사 지원이나 생활 지원 서비스는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통합돌봄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가족이나 복지시설 담당자가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1.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2.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 조사
3. 개인별 맞춤형 돌봄 계획 수립
4. 필요한 서비스 연계 제공
5.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원

보통 신청 후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기까지는 약 1~2개월 정도가 걸린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현재 통합돌봄에서는 의료·요양·건강관리·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약 30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30년까지 약 6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 · 방문 진료 · 재택의료센터 · 만성질환 건강지원	일상생활 · 식사 지원 · 가사 지원 · 차량 지원
요양 · 방문요양·목욕·간호 · 복지용구	주거 · 안전홈케어 · 케어안심주택

이러한 서비스는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통해 제공되며, 이용자는 일부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 서비스 이용 중이어도 신청 가능

이미 장기요양 서비스나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통합돌봄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연계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 중인 어르신이 병원 방문이나 생활 지원이 필요할 경우, 통합돌봄을 통해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초고령 사회 대비한 새로운 돌봄 체계

우리나라는 2024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돌봄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의료와 복지 서비스가 각각 운영되던 기존 방식으로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통합돌봄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도입기(2026~2027년): 제도 기반 마련 및 서비스 연계 시작
- 안정기(2028~2029년): 대상자와 서비스 확대
- 고도화기(2030년 이후): 돌봄이 필요한 국민 전반으로 확대

정부는 앞으로 방문 재활, 방문 영양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해 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

통합돌봄 제도가 시작되었지만 현장에서는 몇 가지 과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마다 의료 인프라와 재정 상황이 달라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담당 인력이 부족해 초기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취약 지역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고 공공의료기관과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해 지역 격차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익숙한 생활 환경에서 존엄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돌봄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보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돌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홈페이지(<https://www.mohw.go.kr/integratedcare>) 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d04300m01.d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더 돌봄(THIRD 돌봄)

지원 절차

1

신청

2

종합판정조사(방문 상담 등)

3

지원계획 수립

4

서비스 연계

5

모니터링

※ 가족, 이용기관 등 대리 신청 가능



상담 · 신청 접수

해당지역 관할

- 행정복지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돌봄통합지원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방향 > 돌봄통합지원

더 돌봄(THIRD 돌봄)

“더 많은 **지역**으로,
더 든든한 **돌봄**이
찾아갑니다!”

돌봄통합지원 사업 안내



돌봄통합지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내 집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주거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제공합니다.



대상자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주요 돌봄 서비스

보건의료

- 1 방문진료
- 2 재택의료센터
- 3 만성질환 건강지원



일상생활

- 1 식사 지원
- 2 가사 지원
- 3 차량 지원



요양

- 1 방문요양·목욕·간호
- 2 복지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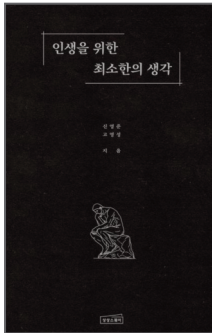


주거

- 1 안전홈케어
- 2 케어안심주택



요즘이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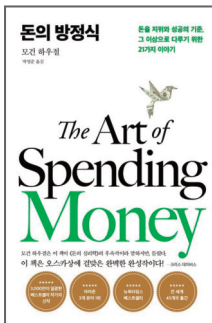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생각이 사라진 생각 멸종의 시대, 다시 사유의 힘을 회복하다

오늘날은 깊은 사유가 사라진 생각의 멸종 시대다.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접하는 짧은 영상과 여기서 받는 즉각적인 자극 속에 허우적거린다. 그 탓에 깊은 사유는 자취를 감추고, 현대인은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질적 문맹'이 되어가고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임에도 불안과 공허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현상 때문이다. 문해력이 떨어지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삶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사유의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은 시대를 초월해 검증된 거인들의 통찰을 빌려와 삶의 중심을 바로 세워줄 '최소한의 생각'을 제안한다. 화면을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멸종 위기에 처한 생각을 되살리고 삶의 중심을 되찾을 수 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진정한 행복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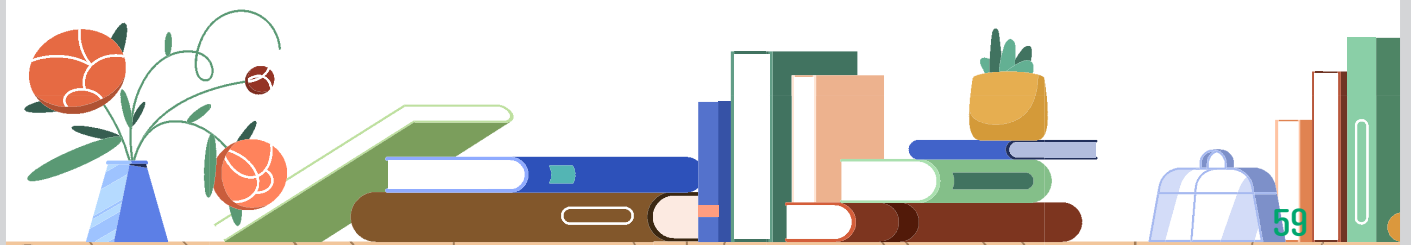


돈의 방정식

돈을 지위와 성공의 기준, 그 이상으로 다루기 위한 21가지 이야기

모건 하우절은 '부=가진 것-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돈의 방정식'이다. 그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이 아닌 '원하는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삶의 자유와 독립이 결정된다.

미국의 석유왕 존 록펠러는 호텔에서 가장 저렴한 방을 예약하면서 어떤 말을 남겼을까? 찰리 멩거는 '돈과 자녀의 관계'에 대해 어떤 놀라운 조언을 남겼는가? 세계일주 요트경주 결승점 앞에서 우승 후보는 왜 갑자기 죽음을 택했을까? 3,000억 달러 밴더빌트 가문이 서서히 몰락해간 과정, 수백억 연봉을 받는 미 농구선수들이 사치를 하지 않는데도 파산하는 진짜 이유 등, 돈을 잘 다루는 능력이 엑셀이 아닌 자기 인식에 달려 있음을, 순간적 행복이 아닌 지속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사 속 일화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연스럽게 깨닫게 만든다.



한국한센총연합회와 똑똑한 두뇌 운동하고, 치매를 예방해요!

시간과 장소에 관련하여 말해봅시다.

현재, 해당 연도를 고르세요.

- ① 2023년 ② 2024년
- ③ 2025년 ④ 2026년

현재 날짜를 생각하고 해당되는 답을 찾으세요.

- ① 1월~3월 ② 4월~6월
- ③ 7월~9월 ④ 10월~12월

현재 날짜를 생각하고 해당되는 답을 찾으세요.

- ① 1일~10일 사이 ② 11일~20일 사이 ③ 21일~31일 사이

지금은 어떤 계절에 속하나요?

- ① 봄 ② 여름
- ③ 가을 ④ 겨울

지금의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 ① 아침 ② 점심
- ③ 저녁 ④ 밤



장소와 사람에 관련하여 말해봅시다.

집주소를 알고 계신가요?

답변: ()

생년월일을 적어보세요.

답변: ()

예시: 1930. 05. 14.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 ① 운동 ② 공부
- ③ 토론 ④ 식사

어떤 가수를 좋아하세요?

답변: ()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답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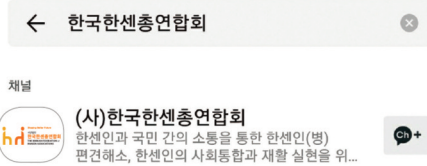
총연합회 카카오톡

+ 채널 추가하는 방법

1.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한다.



2. 한국한센총연합회를 검색한다.



3. 채널 추가하고 다양한 소식 받아보기



(사)한국한센총연합회

친구 81 명

한센인과 국민 간의 소통을 통한 한센인(병) 편견해소, 한센인의 사회통합과 재활 실현을 위한 단체입니다.

채팅하기

채널 추가

소식

정보

상담원 채팅

월,화,수,목,금 09:00~18:00

기관/단체 > 복지

<http://www.hansenkorea.org/>

02-1566-2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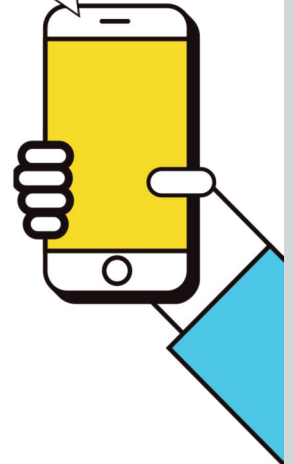
hansen@hansenkorea.org

연락처시대에도

당신의 온기로 채워지는
따뜻한 세상



QR 코드를 스캔하면
카카오톡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센 게시판

한센인(병) 관련 유물을 찾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운영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한센인 또는 한센병 관련 유물을 기증(서약)받고 있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

한센시설(병원) 생활유품
또는 기록

한센가족 후원 또는 봉사
관련 자료



한센가족 작품
(문학, 미술, 음악, 사진 등)

기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한센인과 함께 만드는 종합정보소식지 '한센' 원고 모집 공고

■ 응모 대상 : 제한 없음

■ 응모 기간 : 상시 접수

■ 원고 내용 및 분야

- 한센인 관련 미담, 에피소드, 봉사 수기
- 한센인 창작 또는 한센인 소재 문학 : 시, 소설, 수필 등 제한 없음
- 한센인의 생활현장, 민원 등 지역 소식
- 한센인 관련 정책·학술·역사 자료
- 한센인 관련 다양한 분야의 칼럼
- 기타 「한센」 게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원고

■ 응모 방법

- 제출처 : 총연합회 「한센」 담당자
 - 우편제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 팩스제출 : (02) 1566-2032
 - 이메일제출 : hansen@hansenkorea.org
- 전화문의 : (02) 1566-2339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는...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한센인에게 사랑과 희망을!

후원자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신 사랑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언제나 따뜻한 사회,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한국한센총연합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 후원회장 김정남

후원계좌 국민은행 433401-01-330682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한센총연합회 본부 및 지부 주소

지부명	전화	팩스	주소
중앙회	1566-2339	1566-203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서울·중부지부	(02)532-6777	(02)532-90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9길 10-20(방배동 202호)
부산지부	(051)245-8207	(051)245-820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4번길 3
인천지부	(032)515-5501	(032)515-5504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달로 298번길 62-3
경기지부	(031)973-5329	(031)973-317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1 802-1호
전북지부	(063)542-7822	(063)545-7820	전북 김제시 갈공길 21
광주·전남지부	(062)524-3485	(062)524-3484	광주광역시 북구 버들로 23 동방빌딩 3층
대구·경북지부	(054)971-8975	(054)977-8975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4길 5
울산·경남지부	(055)584-4333	(055)584-4332	경남 함안군 군북면 방어산로 618

‘한센’ 편집 자문위원

위원장	우홍선(사무총장)
위원	박영립(법무법인 최앤박 대표변호사), 신재균(법무법인 서해 변호사), 옥춘광(작가)
기획	전희진

지구의 모든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안식처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 이제 평화로운 삶을 누리십시오.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는 고령한센인을 위한 노인 친화적 환경의
 무료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네트워크로 고령한센인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공감을 포괄할 수 있는
 전인적 관점의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사례관리
 인권개선운동
 재활·치료 프로그램



지역사회교류 활성화

지역사회 기여 실천
 보편적 협력기관 확대
 긍정적 환경마련



노후생활 안전보장

1:1 개별 서비스
 요양·보호·여가 지원
 안정적 생활환경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EVERGREEN WELFARE CENTER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2길 116-15 | TEL : 043) 241-1300 / FAX : 043) 241-1302
 E-mail : egwc1300@egwc.or.kr | 홈페이지 : http://www.egwc.or.kr



모든이에게 사랑과 소망을

HANSEN 한센

하나하나의 나눔이 모여
더큰 베품과 사랑이 됩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는 늘 여러분들께 열려 있습니다.